

2017년 4월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발간일: 2017년5월  
분량: 129 페이지  
가격: 88만원

이혜수 연구원  
(02)6124-6660  
lhs@chemlocus.com

## 페인트, 고부가화로 전방산업 부진 타개해야!

페인트 시장은 건설, 철강, 선박, 자동차 등의 마감 소재로 사용되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 2016년 페인트 시장은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침체와 조선업의 불황, 자동차 생산량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아 급격한 수요 감소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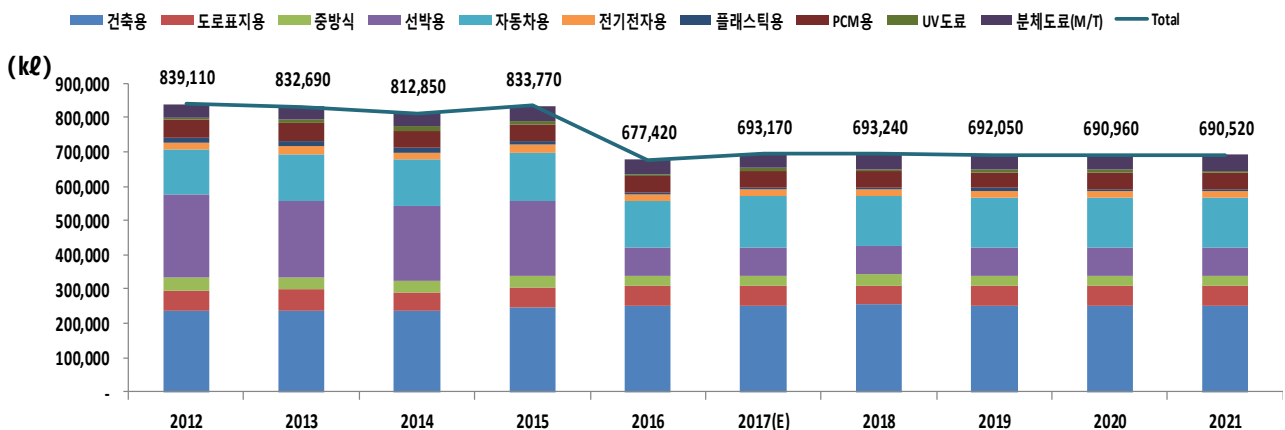
### 국내 페인트 수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5% 감소

국내 페인트 수요는 2016년 67만7420kℓ로 전년대비 18.8% 감소했다. 이러한 수요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2012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선박용 페인트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선박용 페인트는 선박의 발주량과 보수 주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016년 기준 세계 선박 발주량은 1115만 CGT로(480척) 2015년(3962만 CGT, 1665척)에 비해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선주들이 배의 보수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도 선박용 페인트 수요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공업용 페인트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용 페인트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된 것 역시 전체 페인트 시장을 축소시킨 요인으로 파악됐다. 플라스틱용 페인트의 수요량은 가전제품, 모바일 제품 등의 전방산업의 경기애 영향을 받는다. 최근 가전제품 생산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이며, 모바일제품은 표면을 메탈로 처리하거나 도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 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플라스틱용 페인트 생산량과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페인트시장 수요전망(2012-2021(E))



Source) CM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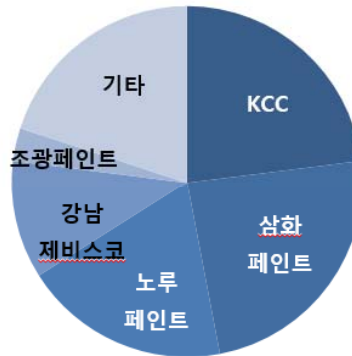
**페인트 메이저 3사, 2016년 건축용 페인트가 수익성 견인**

국내 페인트 메이저 3사인 KCC,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는 건축 경기의 호황으로 수익 악화를 만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페인트 시장에서 건축용 페인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기업별로는 KCC,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가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건축용 페인트의 총 생산실적은 25만 6440kℓ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과 분양아파트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건축용 페인트 및 실내 인테리어를 아우르는 건축 경기가 활황을 맞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건축용 페인트 시장은 새로운 견인 요소가 없어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며, 건축경기가 불황으로 전환될 시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건축용 페인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 건축용 페인트 시장 점유율(2016)**



**선박용 페인트, 2020년 이후 수요 회복 가능할 것으로 전망!**

2016년 선박용 페인트의 수요는 8만2140kℓ로, 전년대비 62%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선박 수주 물량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020년 이후에야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IMO(국제해양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16년 선박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전세계 모든 선박의 연료가 기존 벙커C유에서 MGO(Marine Gas Oil) 혹은 LNG(liquefied natural gas tanker) 선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선박 연료의 변경은 대규모 선박 교체 수요를 유발하여 전방산업인 조선 경기의 회복과 선박용 페인트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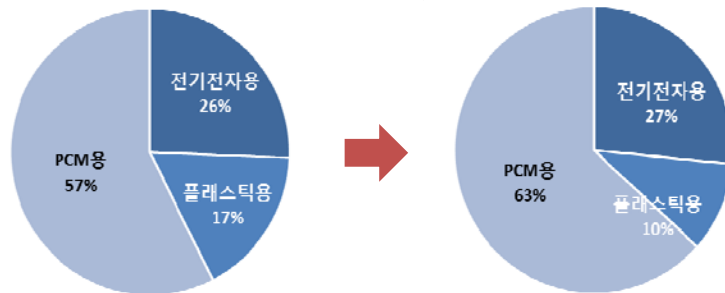
**공업용 페인트, PCM도료의 고부가화에 나서야!**

공업용 페인트 시장의 전체 수요는 2012년 대비 12% 감소한 7만3350kℓ를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 전기전자용, 플라스틱용, PCM용의 수요는 각각 연평균 4%, 16%, 2% 감소했다.

합침용, 전선용 바니쉬 생산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이전에 영향을 받아 전기전자용 페인트 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전기전자용 페인트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가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고정 수요만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마저도 중국 제품의 기능적 업그레이드가 이뤄진다면 국내 제품은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업용 페인트 중 가장 급격한 수요 감소를 보인 플라스틱용 페인트는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의 확대와 핸드폰의 메탈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재인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기타 수요가 일정부분 확보되어 있지만, 기존 모바일이 차지하던 수요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로 화장품 수출이 감소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표3. 공업용 페인트 용도별 점유율(2012→2016)**



\* 공업용 페인트는 기업별로 나누는 기준이 상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PCM용 도료, 전기전자용 도료(절연도료), 플라스틱용 도료에 대해서만 다룸

이에 따라 냉장고 도어 및 측판, 세탁기 몸체, 에어컨 측판 등 고급 가전제품과 샌드위치 패널, 건물 외장 벽체 등의 건자재에 채용되어 비교적 시장 트렌드 변화에 덜 민감한 PCM도료만이 공업용 페인트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CM도료는 작업 대상에 도장을 먼저 실시한 후 도장된 물체를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성형 및 가공하는 도료를 의미한다. PCM도료는 일반적인 도료와 생산 및 도장 방법 면에서 구분된다. 가전제품 생산기업들은 기존 범용 칼라 강판에서 고급 무늬의 인쇄가 가능한 프린트 강판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산 저가 칼라 강판의 유입이 PCM 도료 수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PCM도료 공급기업은 기존 Line Speed 개선에 치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맞춤형 생산 혹은 고내후성 등의 기능이 부여된 고부가화 제품에 주력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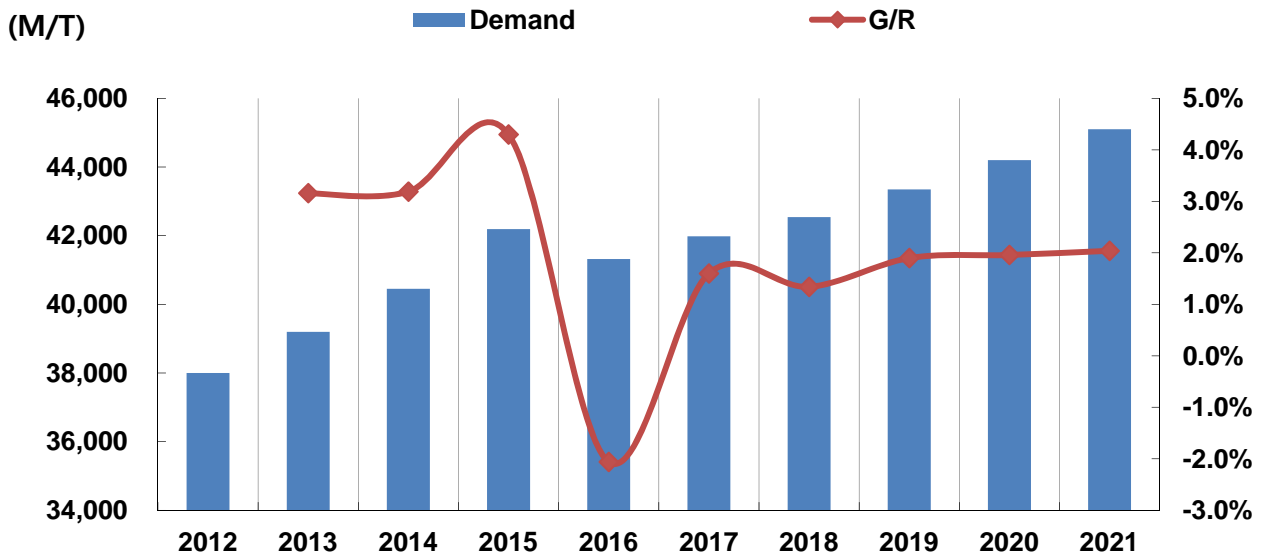
**분체도료, 전방산업 의존도를 낮춰야 성장 가능하다!**

분체도료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분말을 도장, 가열, 용융시켜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로, 에폭시-아크릴 폴리에스테르 등의 열경화성 타입이 사용된다. 분체도료의 도장법으로는 침적법, 정전법 등이 있으며, 유기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이 적고, 환경 보호에 적합한 도료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분체도료 수요는 가전제품 생산기업의 해외공장 이전 등의 영향을 받아 2016년 기준 전년대비 2% 하락한 4만1320톤을 기록했다. 하지만 공급기업은 박막화와 고외관을 실현할 수 있는 고부가 제품 개발로 수익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액체 도료보다 고가이지만 재도장이 불필요해 최종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갖춰 자동차, 가전제품 등 기존의 의존도가 높은 전방산업 외에서도 신규용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초기 고정비 투자가 일반 용제 도료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분체도료는 신규 진입이 어려워 메이저 기업의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4. 분체도료 수요 전망 (2012-2021(E))



페인트&코팅 시장분석 및 전망(2017) 보고서에서는 용도/ 기능별 페인트의 시장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간 국내 수요 및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도로표지용 도료, 자동차용 도료, 중방식용 도료 등의 시장분석 및 전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CMRI 시장분석 보고서-페인트&코팅 시장분석 및 전망 (2017)보고서 참조